

사도신경 강해 13강 보조자료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I.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II. 13강 주요 문답 내용(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7문과 57답

57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57답)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2.58문과 58답

58문)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58답)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 “Truth, Tears, Anger, and Grace” - 팀 켈러의 설교¹⁾

나는 거의 해마다 아주 끔찍한 악몽(이 꿈은 나의 아내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을 되풀이하여 꾸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가 죽는 꿈입니다. 꿈에서 어떤 일이 아내에게 일어나고, 나는 그녀 없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는 것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나는 아내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악몽을 도리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잠에서 깨어난 직후 몇 분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기쁘기 때문입니다.

나는 꿈에서 깨어 일어나 “오 이런! 이건 단지 꿈이었어. 내가 겪은 모든 나쁜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라고 외칩니다. 내가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더 나은 무언가 (가령 새로운 아내를 소개해 주는 것)를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깨어난다는 것은, 그 꿈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장차 더 나은 낙원을 주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번 주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저 나쁜 꿈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불행한 일을 실재가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분은 이제껏 우리에게 일어났던 최악의 사건들을 형체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십니다.

※ 참고구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빌3:21)

“(4)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5)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고후5:4-5)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17:3)

1) 2001년 9월 16일, “The Church in the City”라는 주제로 진행된 팀 켈러의 시리즈 설교 중 하나이다. 설교 전체를 듣기 원하는 분들은 아래의 QR코드를 참고하라.

